

광주시, 대선공약 초안 시민의견 청취

시민토론회 개최...광주공약에서 영·호남 아우르는 초광역 공약까지



광주시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5대 과제, 79개 단위사업을 골자로 한 대선공약 초안을 마련한 뒤 시민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20대 대선공약 시민 토론회를 열고, 광주시가 발굴한 대선공약 초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대선공약 과제(안)는 광주시와 광주 전남연구원이 지난 3월 실·국 설명회를 시작으로 5개월 동안 시민단체, 교수와 기관 전문가그룹,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무원 등 모두 123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과정을 통해 마련했다.

우선 광주시는 광주를 아시아 인공 지능(AI)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AI에 관한 법률제정과 AI반도체 특화단지 등을 유치하고 자동차·에너지·가전·공기·의료·식품 산업 등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미국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보다 더 아름다운 광주 트윈타워(동구, 광산구) 건립과 미국 뉴욕 UN 본부와 같은 명소가 될 국립 광주글로벌&아시아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센터는 아시아 56개국을 상징하는 56층 중앙 건물에 5대양을 상징하는 10층 규모의 부속건물 5개 동으로 구성됐다.

또 광주 전역을 교육혁신시범특구로 지정하고 지역 대학들에 대한 교육 규제를 가감히 해소해 광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권 후보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복합적인 문화와 레저여건을 갖춘 광주와 인근 5개 시·군(나주, 화순, 함평, 담양, 장성)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과밀화된 수도권에서 사람, 돈, 기업들이 내려 오도록 이들 지역을 아리(‘넒다’는 의미) 빛고을촌 생활혁신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공약

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미래성장의 주춧돌이 될 SOC에 있어서는 광주에서 호남권 8개 시(익산, 군산, 전주, 나주, 목포, 순천, 광양, 여수) 어디든지 철도로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철, 경전선사업 등을 좀 더 속도를 내서 추진토록 하고, 호남과 영남의 횡적 대동맥이 될 달빛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창녕과 부산까지 고속도로 신설로 광주와 부산을 도로로도 2시간30분 안에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각 당 후보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매력적인 남도문화가 잘 보존된 도심지역에 아시아 여반 아트벨리를 조성, 전통과 현대, 아시아와 남도 문화가 어우러진 아시아 문화예술 창작·교류·향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세계 3대소인 중국 항주 송성 가무쇼,

프랑스 리도쇼 등과 같은 광주만의 특색과 매력을 갖춘 광주 가무쇼를 신설하고, 전용극장 건립사업 등도 구상했다.

이에 대해 토론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놀이공간이 갖춰진 광주의 실리코밸리를 조성하자는 의견, 무등산 보존과 개발의 적절한 균형을 견지하며 사회적 교통 약자를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하자는 조심스런 의견도 나왔다.

또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광주만의 특색과 역량을 분석,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과 공약 과제가 대선공약이나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도 전하기도 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광주의 성장 공약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완성된 공약과제가 대선 공약, 국정 과제에 반영돼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대 대통령 임기 동안인 2027년까지 광주가 정치 1번지에 더해 경제적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공약과제를 개선·보완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해 최종 공약과제를 확정할 후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에 맞춰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동구 학동, 이웃간 소통 이음교실 프로그램 ‘호응’

광주 동구는 지난 23일 ‘학동을 만드는 아이디어 연구모임(이하 학아련)’이 학동 마을사랑채에서 주민을 위한 ‘토닥토닥 꽃꽂이’ 이음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아련에서는 올해 이웃 간 교류와 소통을 목표로 주민들을 잇는 3가지 이음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 중이며 이번에 진행된 ‘토닥토닥 꽃꽂이’는 남도김치 담그기, 베이커리 만들기에 이은 세 번째 기획이다.

지난 6월 장미와 안개초 등을 이용한 꽃꽂이를 첫 수업을 진행한 꽃꽂이 이음교실은 이번엔 풍란을 옮겨 심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구 시설관리공단 신규·경력직 공채

광주 서구는 시설관리공단을 이끌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규·경력직 첫 직원을 공개경쟁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총 7명이다. 신규직 6명(일반직 7급)과 경력직 1명(일반직 4급)이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오후 6시까지 공단 채용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성별·학력에 제한이 없다. 신규직은 공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광주시에 주민 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남구, ‘향등제 명품 건강누리길’ 조성 본격화

광주 남구 빛고을 건강노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향등제 일원에서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건강누리길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향등제 건강누리길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을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생태적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향등제 주변 4.800㎡ 일원에 건강누리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북구, 청년 1인 가구 소통 프로그램 ‘소셜다이닝’

광주 북구는 지역 내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음식을 매개로 청년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겪는 고립 또는 우울감 등 다양한 고민을 공감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청년 요리사에게 투움바파스타, 체육 뷔페 등 집에서 간편히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며 소통한다.

북구에 사는 1인 가구 청년(만 19~39세)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소셜다이닝에 참여할 청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북구청청년센터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 ‘도로 물고임 해결’ 사업비 3000만원 확보

광주 광산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서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사업이 최종 선정돼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각 지역의 우수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광산구가 제안한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사업은 2020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특히 받은 친환경 스마트 배수장치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의 고질적인 물고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공사시간과 비용이 기존 대비 76%나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남악신도시 활성화 전담팀 가동

전남도는 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남악신도시 활성화팀은 전남도 관련 부서, 목포시와 무안군, 광주전남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신도시 활성화, 신도시와 주변도시의 상생발전, 문화관광도시 조성, 21세기 흐름에 맞춘 남악 도시 계획 정비방안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29일 문금주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현실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남악신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서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전남 먹거리 관광지서 안심 ‘국산김치’ 드세요

여수 남만포차·장흥 토요시장 등 8곳서 인증업체 표시제 참여

전남도는 국산김치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첫 시행한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가 전남 대표 먹거리 관광지에 위치한 음식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 업체에서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전남도와 국산김치자율포시위원회가 공동 추진한다.

지난 20일 기준 전남지역 유명 먹거리 골목 8곳 144개 음식점이 표시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107개 음식점은 인증을 마쳤다. 나머지 37개 음식점은 신청서를 제출, 모두 인증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여수 남만포차 8개 ▲장흥 토요시장 한우삼합 25개 ▲함평 읍장터 생고기비빔밥 18개 ▲순천 웃장 국밥거리 17개 ▲무안 벨낙지거리 19개 ▲영광 굴비거리 굴비정식 30개 ▲완도 전복명가거리 8개 ▲신안 섬벨낙지거리 9개 등이다.

현재까지 전남지역 국산김치 인증업체 사용표시제 지정 신청 실적은 2천804개소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한국연립은행재단
Korea First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어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로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